

본당 소식

♣ 오늘의 전례

- 오늘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신앙 고백의 모범이 된 베드로와 신앙의 내용을 밝히 깨우쳐 준 바오로는,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도들입니다. 우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를 본받아,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언합시다.

♣ 7-8월 성가대 방학

- 성가대 방학 : 2025.07.09. - 08.31
 - 7-8월은 여름 휴가로 인한 성가대 방학을 가집니다.
- 미사 기도문은 말로 진행되며, 입당 봉헌 성체 파견은 노래로 진행합니다.

♣ 7,8월 휴가 관계로 사목회의 및 청년구역, 성모회 회의는 없습니다.

♣ 다음 주일(7월 6일)부터 27일까지 로마에서 유학중인 대구교구 강찬영 펠릭스 신부님께서 오셔서 미사를 봉헌해 주십니다.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43.65€ • 교무금 400.00€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안희관 요셉

전례 성가

입당 : 291 (사도 성 베드로와 바오로)

봉헌 : 220 (생활한 제물)

성체 : 154 (주여 어서 오소서)

151 (주여 임하소서)

파견 : 201 (은총의 샘)

특송 : 목자의 노래

전례 봉사

이번 주일(6월 29일)	다음 주일(7월 6일)
1독서: 안희관 요셉	1독서:
2독서: 이경진 카타리나	2독서:
복 사: 안태오 마태오, 문수빈 미카엘라	복 사: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뇨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총무: 박건욱 레오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5년 6월 29일

(홍)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교황 주일)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축제로
오늘 교회가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교회의 기초를 놓아 준 그들의 가르침을 저희가 모든 일에서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갓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돌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

제1독서 (사도행전 12,1-11)

그 무렵 1 헤로데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었다.

2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게 하고서,

3 유대인들이 그 일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4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네 명씩 짝 네 개의 경비조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작정이었던 것이다.
 5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6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7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8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매고 신을 신어라.” 하고 이르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 천사가 또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하였다.
 9 베드로는 따라 나가면서도,
 천사가 일으키는 그 일이 실재인 줄 모르고 환시를 보는 것이라니 생각하였다.
 10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안으로 통하는 쇠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앞에서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어떤 거리를 따라 내려갔는데,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11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4,6-8.17-18)

사랑하는 그대여,
 6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7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8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17 주님께서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
 다.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18 주님께서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복음 (마태오 16,13-19)

13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14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15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16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18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
 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
 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종 교황을 보살펴 주시어, 주님 백성을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며 세상 안에서 참된 지도자의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2.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평화의 주님, 저희 민족을 이끌어 주시어, 남북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너그러운
 대하며, 한반도를 화해와 용서의 땅으로 일구어 나가는 데 힘쓰게 하소서.
3.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유하신 주님,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굶어살피시어, 그들이 주님 품 안에서 위
 로를 받고, 저희는 그들 안에 살아 계시는 주님을 알아 뵈고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
 서.
4.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지역 사회의 구성원인 저희를 도와주시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에 관심을 기울이며 소외되는 이가 없이 모두 더불어 살아가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이 성찬의 성사로 교회에 활력을 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빵을 나누며
 주님 사랑 안에 굳게 머물러 한마음 한뜻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